

광주은행·광주은행 노조, 2020 희망 나눔에 78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과 광주은행 노동조합(조합장 장용관·오른쪽)은 최근 본점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가운데)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 78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호남대-동명대 'AI 특성화 대학 구축' 업무 협약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와 동명대학교(총장 정홍섭)는 최근 동명대 중앙도서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육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AI 특성화 대학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과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 ▲교육혁신 ▲S/W 교육 관련분야와 관련 양교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상호협력 및 업무 교류를 활발하게 펼쳐 나가기로 했다. <호남대 제공>

육일건설 강대규 회장·김민우 사장 장애인체육회 후원



강대규 ㈜육일종합건설 회장과 김민우 사장이 최근 광주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장애인 은퇴선수들의 활동지원과 지도자 사기진작에 쓰여질 예정이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강신욱 통계청장, 호남통계청 방문 사업 점검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을 찾아 지역 중점 사업을 점검하고 맞춤형 통계 생산에 힘을 쓸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호남통계청 제공>

“조청·고추장에 400년 전통 비법 숨쉬죠”

‘2019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순천 김순옥 구산양반엿 대표 39년째 ‘조이당법’으로 조청 만들어 유과·강정·쌀엿 등 제조 조청으로 전통 고추장 담가 특허 취득...“전통 문화 전승대야”

400년 전통이 살아있는 조청을 만들어 온 김순옥(여·63) 순천 구산양반엿 대표가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김 명인은 순천 주암면 구산마을에 내려오는 전통 제조법 ‘조이당법’을 39년 동안 이어 왔다. 조청을 이용한 유과, 약과, 강정 등도 만들고 있으며, 쌀엿, 고추장 등도 전통을 살려 제조하고 있다. 곡성 출신인 김 명인은 육천 조씨 집성촌인 구산마을로 시집 온 뒤 증가집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부터 조청 제조법을 배웠다. 김 명인에 따르면 이 마을은 130세대가 넘는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전통 조청을 만드는 곳으로, 시제나 제사를 올릴 때 늘 조청과 술, 한과를 직접 만들어 올렸다. “조이당법 조청은 동의보감에도 약으로 소개돼 있지요. 다른 조청보다 찹쌀이 보다 많이 들어가거나 엿기름 배합률이 다르게 특징이에요. 레시피를 배울 적에는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옛 것이 좋다’는 마음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선봉장이 되고 싶어요.” 김 명인은 전통적인 제조법을 오히려 살려 조청을 만든다. 그는 지금도 4개의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며 솥에 조청을 끓인다. “제조법의 현대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전통 레시피를 그래프(g) 단위에 맞춰 정량화·규격화했다. 또 무쇠 가마솥에 조청이 눌러 붙어 생기는 손실을 줄이고자 양은 솥을 도입했고, 아궁이 내부를 내화 벽돌로 바꿔 열을 고르게 분산시켰다. 진정도 증가집인 김 명인은 6살때부터 요리를 시작해 전통음식 만드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을 따라 해마다 13번 제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통음식 ‘전문가’가 됐다. 김 명인이 순천 구산양반엿 대표로서 사업에 뛰어들은 건 2008년경. 당시 순천에서 열린 농어민의 날 기념 음식 전시회가 계기가 됐다. “당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찾아와 제가 만든 제품을 보고 ‘상품화를 해야 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처음엔 ‘두렵다. 못 하겠다’며 주저했지만, 결국 전남농업기술원 ‘여성일손앗기 사업’을 통해 5000만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회사는 전국 곳곳에 조청과 한과를 전할 만큼 발전했으나, 명절 때를 제외하면 오직

남편과 단 둘이서만 제품을 만들고 있다. 김 명인은 또 한옥민박체험, 한과만들기 체험 등 활동도 제공하고 있다. 집에서 담긴 술·안주도 전통 주안상 차리는 법, 계절별로 형형색색 달라지는 다과상 차리는 법이나 약선요리 만드는 법 등을 수업하기도 한다. “시대 흐름에 따라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를 살려야 한다”는 김 명인의 소명의식이 담긴 활동들이다. 김 명인은 더 전문성 있게 전통음식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는 지난해 2월 동강대학교 호텔식품영양학과를 늦깎이로 졸업했으며, 2011년 남도음식 한식차림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3년 세계음식경연대회 대동령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도음식연구회장, 농업진흥청 식품자원부 한식분과 회장이기도 하다. “장독대 지키는 여성”을 좌우명으로, 조청으로 전통 고추장을 담가 특허를 내기도 했다. “건강한 발효 음식을 만드는 장독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는 설명이다. “명인증을 받은 날, 자부심을 갖기도 전에 어깨부터 무거워졌어요. 국민 1% 미만 에 해당하는 중대한 일을 맡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전통 음식을 만들며 후대에 전해주겠습니다. 단순히 맥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발전하며 계승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해상케이블카 ‘소비자 최고 브랜드 대상’ 평일 평균 5000명 이용...개통 3개월만에 탑승객 50만 돌파



목포해상케이블카(대표이사 정인재·오른쪽)가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한 ‘2020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30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20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상케이블카 부문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9회째 열리는 이 시상식은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JTBC가 후원한다. 올해는 49개 기관과 56개 기업 브랜드

가 수상 명단에 올랐다. 국내 최장으로 기록된 목포해상케이블카(길이 3.23km·최고높이 155m)는 정식 개통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7일 탑승객 50만명을 돌파했다. 평일에는 평균 5000명, 주말 1만여 명이 이용하며 목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인재 대표이사는 “브랜드는 기업가치를 드러내는 표시이자, 품질을 보증하는 이마지이며 기업의 거울”이라며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80년대 코미디 주도...원로 희극인 임희춘 별세

유행어 ‘아이구야~’로 1970년대 국민을 울고 웃긴 원로 희극인 임희춘이 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52년 극단 동협에서 데뷔한 고인은 배삼룡, 구봉서, 서영춘 등과 함께 1970~80년대 대한민국 코미디 프로그램을 주름잡던 희극인이다. 한국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인은 배고픔을 면하려고 ‘숙식제공’이라는 단어로 끌려 무작정 연극배우가 됐다. 이후 김희갑, 구봉서와의 인연으로 희극배우로 진로를 바꿔 ‘웃으면 복이 와요’, ‘고전유머극장’, ‘명랑극장’, ‘유머1

번지’ 등에서 활약했다. 당시 우스꽝스러운 바보연기로 인기를 끌었고 유행어로는 기쁠 때나 슬플 때, 황당할 때 모두 익살맞게 사용하던 ‘아이구야’가 있다. 고인은 은퇴 후 1995년 복지재단 노인복지후원회를 창립해 봉사에 힘썼다. 2010년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인사

- ◆화순군 ▲4급 승진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회소윤장 문형식 ▲5급 승진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5급 승진/결 ▲이서명장 직무대리 최길래 ▲백아명장 직무대리 안희순 ▲환경과장 직무대리 민영애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홍정용 ▲의회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영원 ▲5급 전보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주향숙 ▲스포츠산업과장 정만식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이양면장 임형근 ▲도곡명장 윤영복 ▲동북명장

- 정은채 ▲사평명장 김용성 ▲한천명장 김성식 ▲행복민원과장 양주형 ▲능주명장 최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급 승진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홍창의 ▲보임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최나승 ▲부장 오영일 ▲군산지사장 이동석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이경주 ▲목포지사장 최영태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문승창(사업)·송건희씨 장남 정원근, 이종태(전 광주일보 기자)·김경희씨 장녀 아령양·8일(토) 낮 12시 충남 천안시 아산역사 내 CA웨딩컨벤션 2층 루체홀. ▲안영복·유명희씨 차남 대명(경찰관)군, 윤복현(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한광숙씨 장녀 희다(경찰관)양·8일(토) 오전 11시 상무지구 힐리데이인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례회회의=11일(화) 오후 6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고씨 광주·전남중흥회(회장 정주)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15일(토) 오

- 전 11시 KT정보통신센터4층(광주 동구청 옆) 010-6290-1621.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고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치의원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

- 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

- 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